

코로나 19 로 인한 외국인 시민 생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도요나카시에는 6,072 명의 외국인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2021 년 6 월 30 일) 。

한국·조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미국	기타
1,881	1,660	797	289	149	149	1,147

영주자	특별영주자	유학	기술·인문지식·국제	가족체재	기타
1,651	1,437	516	472	418	1,578

도요나카시와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 (ATOMS : Association for Toyonaka Multicultural Symbiosis)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국인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도요나카시와 ATOMS 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위해 설문조사 (2021 년 7 월부터 8 월) 와 인터뷰 조사 (2021 년 8 월부터 12 월) 를 하였습니다.

1. 설문조사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탁한 설문조사는 (1) 도요나카시에 살고 있는 사람 (2) 18 세 이상의 사람 (3) 재류자격이 「특별 영주자」, 「영주자」 이외의 사람입니다.

응답 인원은 모두 2,702 명입니다.

★도요나카시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3 가지의 회답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 (1) 인터넷 설문조사 페이지에서 답변한다.
- (2) 설문조사지로 답변한다.
- (3) 도요나카국제교류센터 직원에게 답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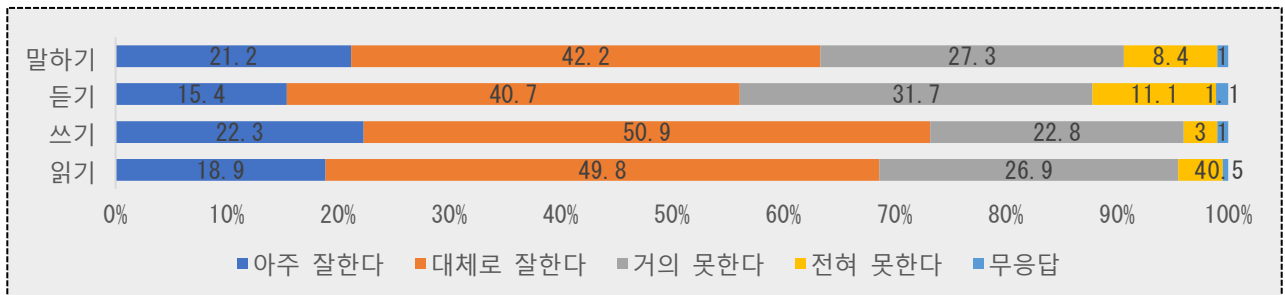
631 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3.7%)

1.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모두 「어느정도 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느정도 할 수있다」 의 사람과 「매우 잘 할 수있다」 의 사람의 비율을 합치면 「듣기」 73.2%、 「말하기」 68.7%、 「읽기」 63.4%、 「쓰기」 56.1%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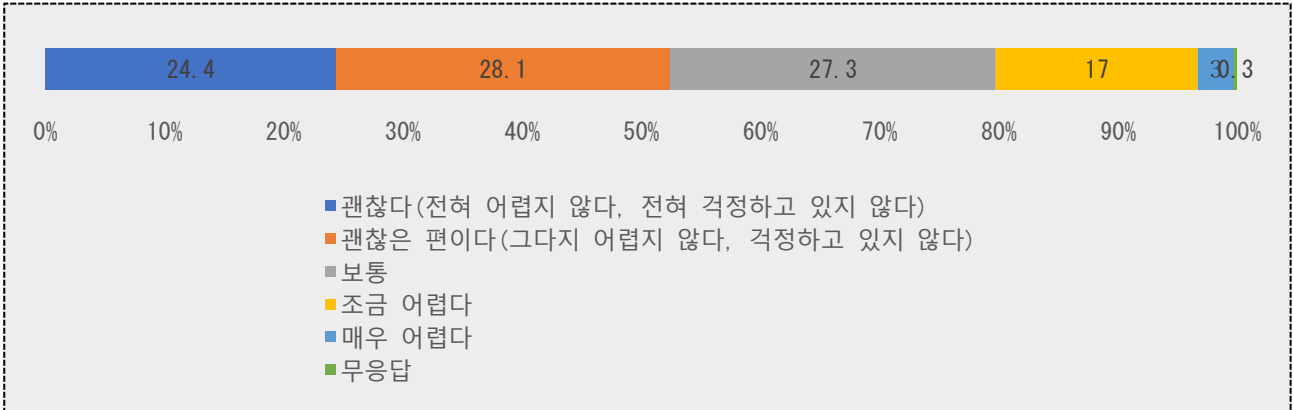
Q.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나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각 항목별로 가장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세요. (응답자 전체 n=631)



2. 생활비에 대해서

「그런대로 괜찮다 (별로 어렵지 않다. 걱정하지 않는다)」 28.1%
 「보통」 27.3%、「괜찮다 (전혀 어렵지 않다.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 24.4%、「조금 어렵다」 17.0%、「많이 어렵다」 3.0%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Q. 지금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응답자 전체 n=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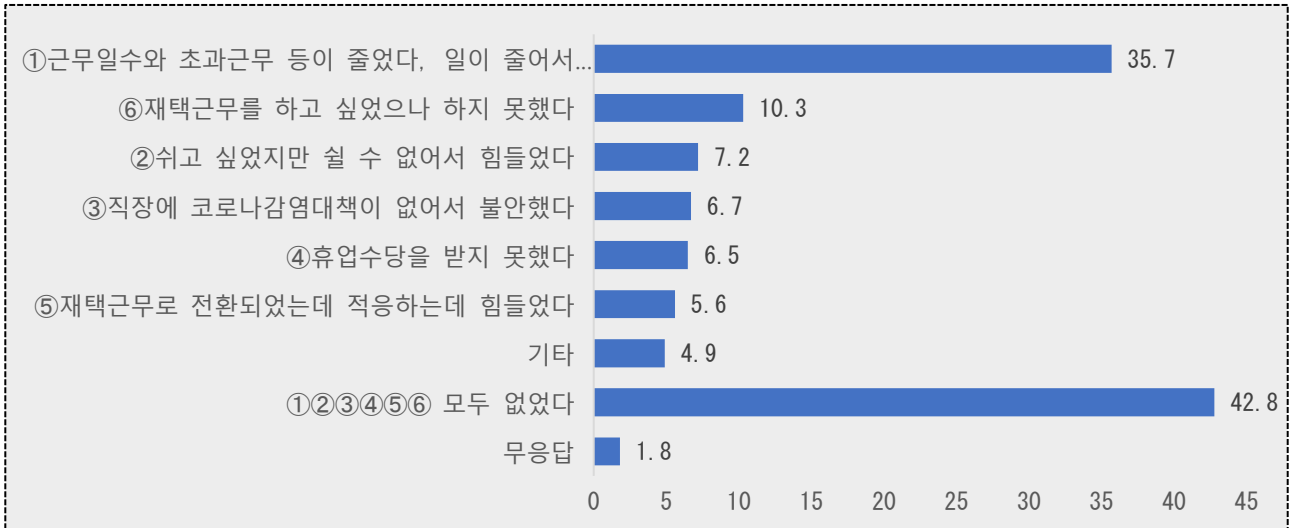


3. 코로나로 인한 일의 변화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55.4%가 코로나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근무일의 일수 또는 잔업 등이 줄었다. 일이 줄어 곤란했다」 35.7%、「⑥리모트 워크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10.3%、「②쉬고 싶었지만 실 수가 없어 곤란했다」 7.2%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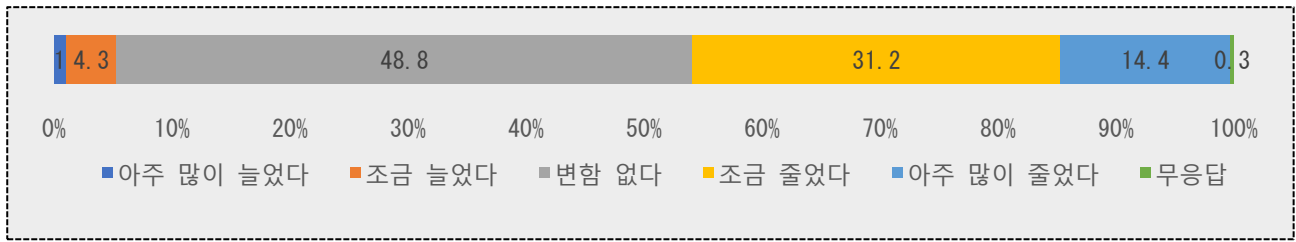
Q.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지금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세요.(복수 응답 가능) 일하는 사람 (n=446) (%)



4. 코로나로 인한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의 영향에도 소득은 「변함없다」 48.8%、「조금 줄었다」 31.2%、「많이 줄었다」 14.4%、「조금 늘었다」 4.3%、「많이 늘었다」 1.0%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귀하 또는 가족의 급여에 변화가 있었나요? (응답자 전체 n=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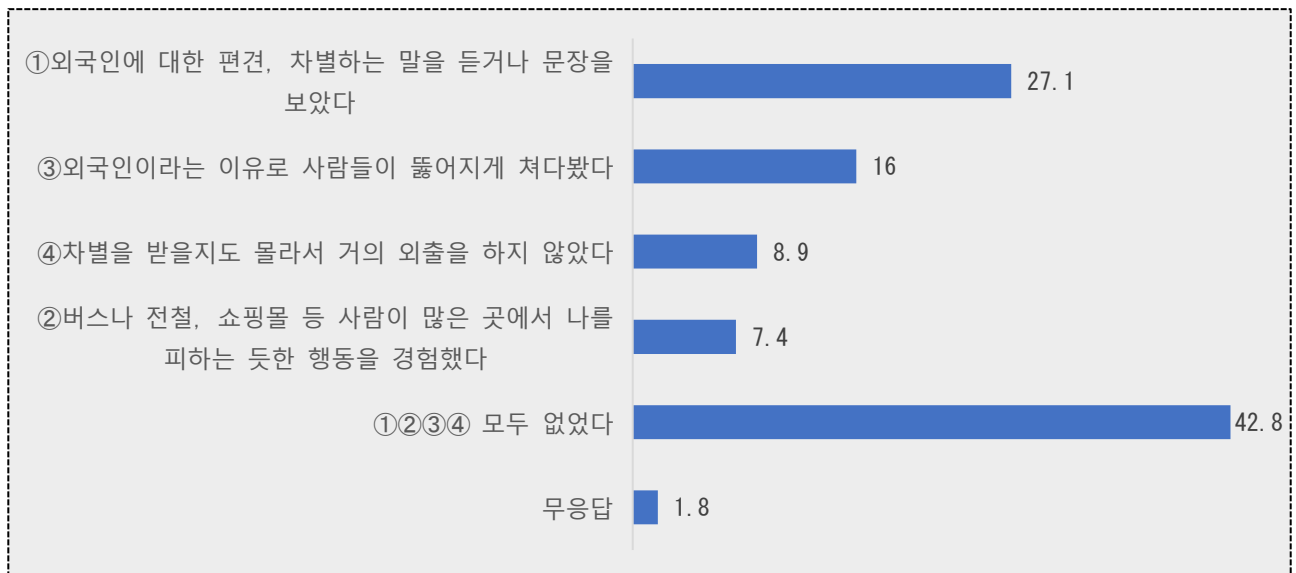


5. 코로나로 인한 변화 (차별) 에 대해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40.3%의 응답자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①외국인에 대한 편견·차별적인 언어를 듣거나 글을 보았다」 27.1%、「③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뚫어지게 본다」 16.0%、「④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했다」 8.9%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나 또는 가족이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했나요? '차별 관련'(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전체 (n=631) (%)



6. 자녀양육의 불안·부담감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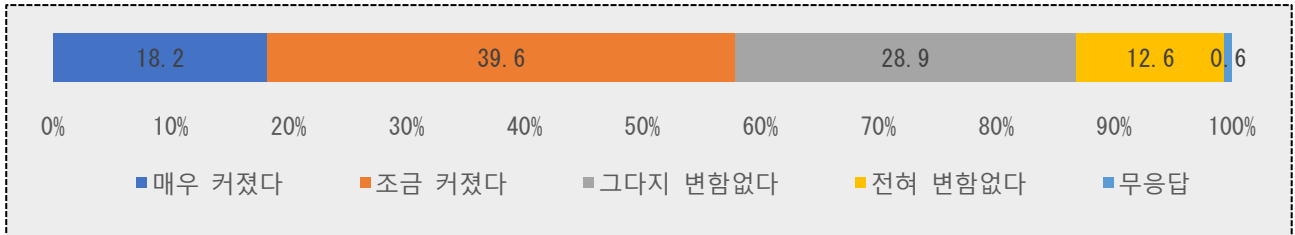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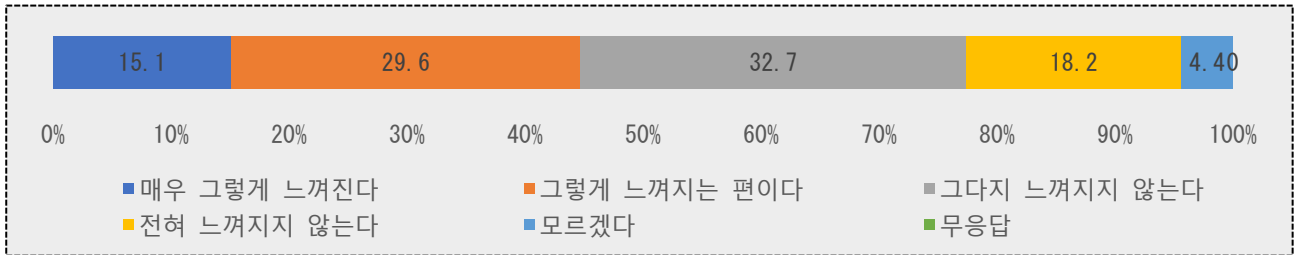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육아의 불안이나 부담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불안·부담으로 생각한다」 15.1%、「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불안·부담으로 생각한다」 29.6%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약 44.7%의 사람이 육아에 대해 불안·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불안과 부담이 「매우 늘었다」 18.2%、「조금 늘었다」 39.6%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57.8%의 사람이 불안과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Q.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안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부담된다고 느껴지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 불안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부담된다는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요? (18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사람 n=159)



7. SNS 이용 상황에 대해서

PC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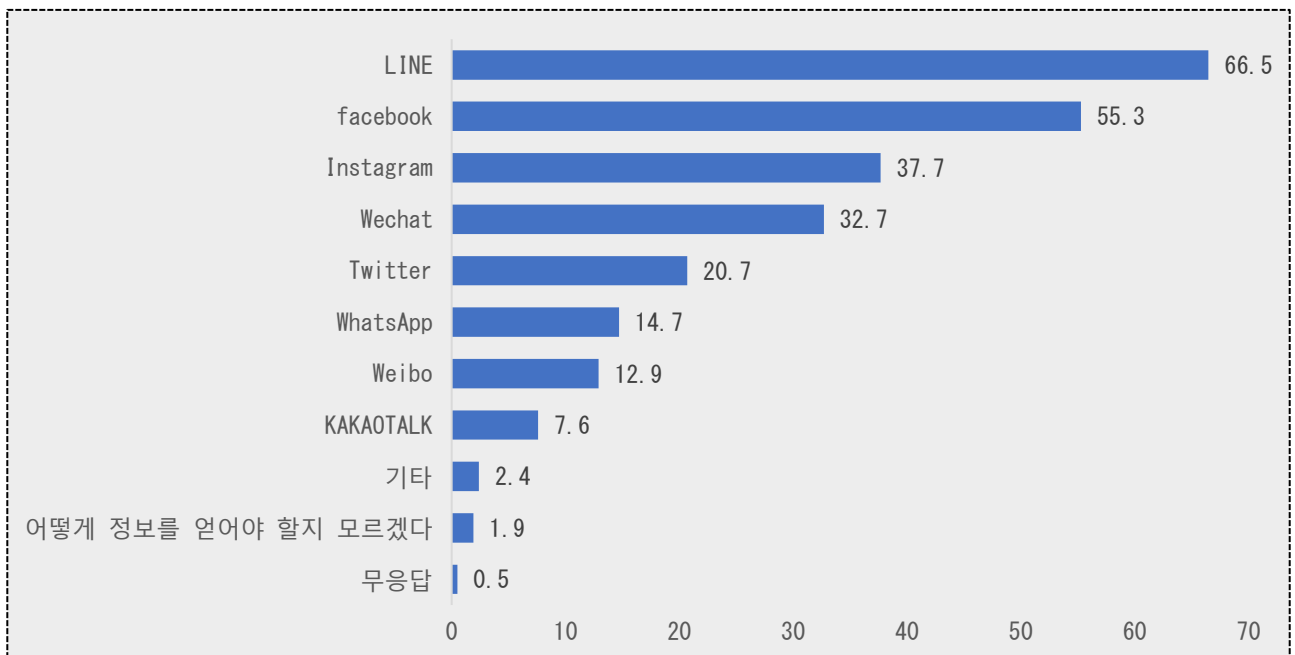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것은 「LINE」 (66.5%)

다음은 「facebook」 (55.3%)

「Instagram」 37.7%、「WeChat」 32.7% 였습니다.

Q. 주로 어떤 SNS를 사용하나요?(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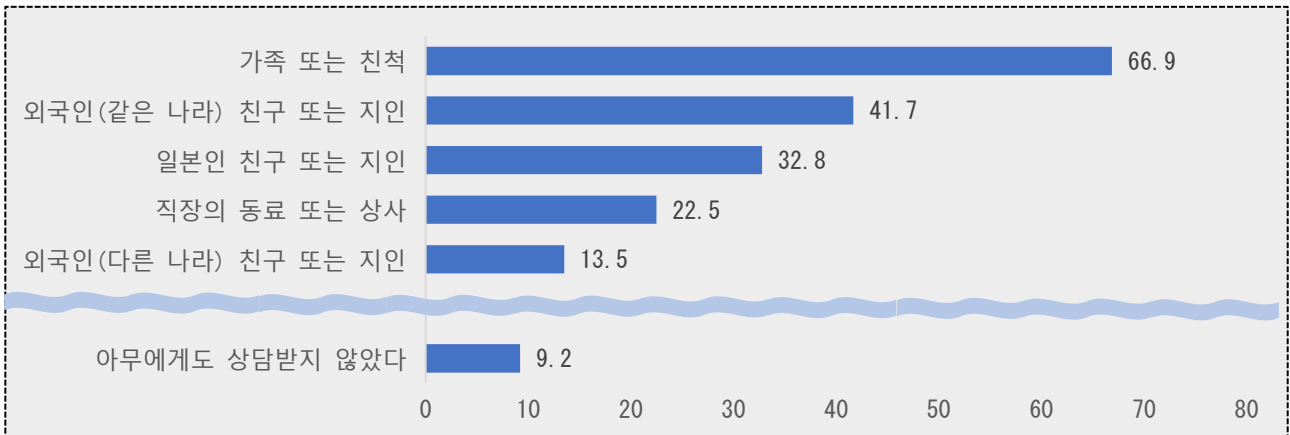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n=618) (%)



8. 걱정되는 일이나 고민 상담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에 상담하는 사람이 66.9% 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같은 나라) 친구나 지인」에게 상담한다 41.7%
 「일본인 친구나 지인」 32.8%、「회사동료나 상사」 22.5%、「모국인이 아닌 외국인 친구나 지인」 13.5%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9.2%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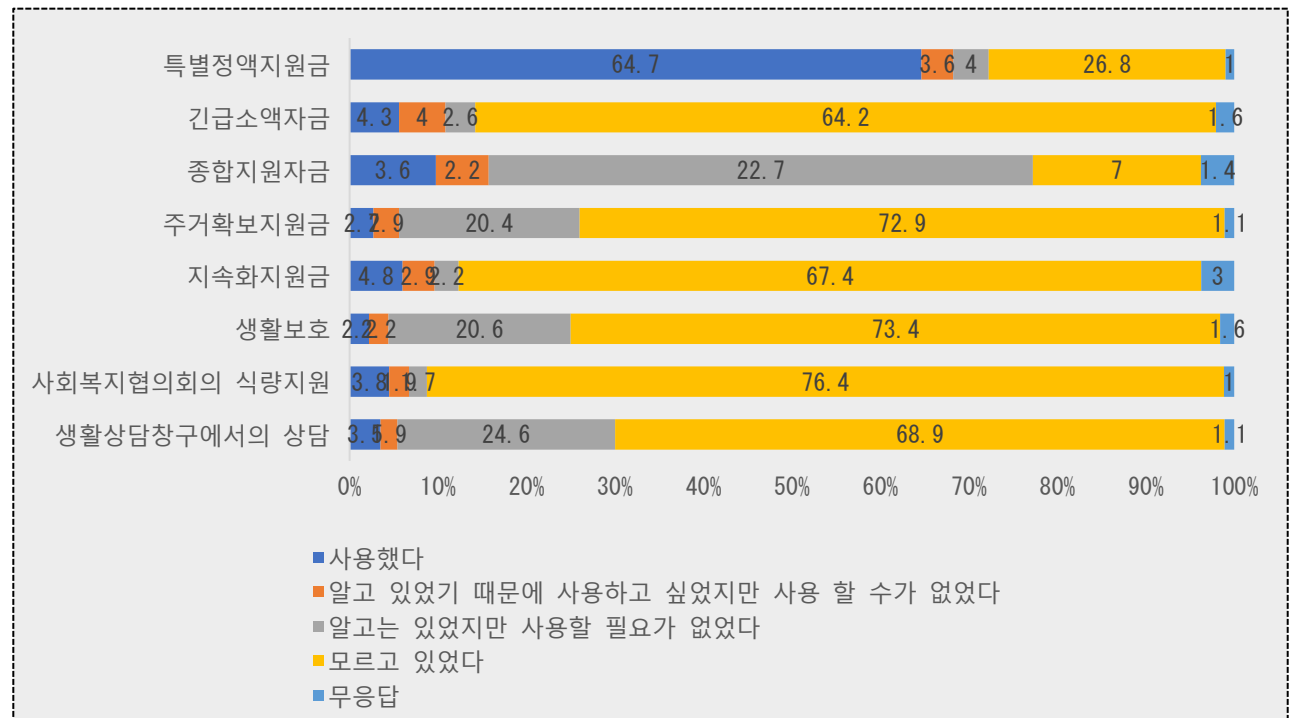
Q.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걱정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상담받았나요?(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 전체 (n=631) (%)



9. 공적 지원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특별 정액지원금(급부금 : 나라에서 주민에게 지원된 급부금 (1인당 10만엔)) 을 「사용했다」 64.7% 그 외의 공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라고 답한 사람이 50%을 넘었습니다.
 그 외의 공적인 지원을 사용한 응답자는 5%이하였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2020년 2월부터) 아래의 공적 지원을 이용했나요?
 특별정액지원금 (응답자 전체 n=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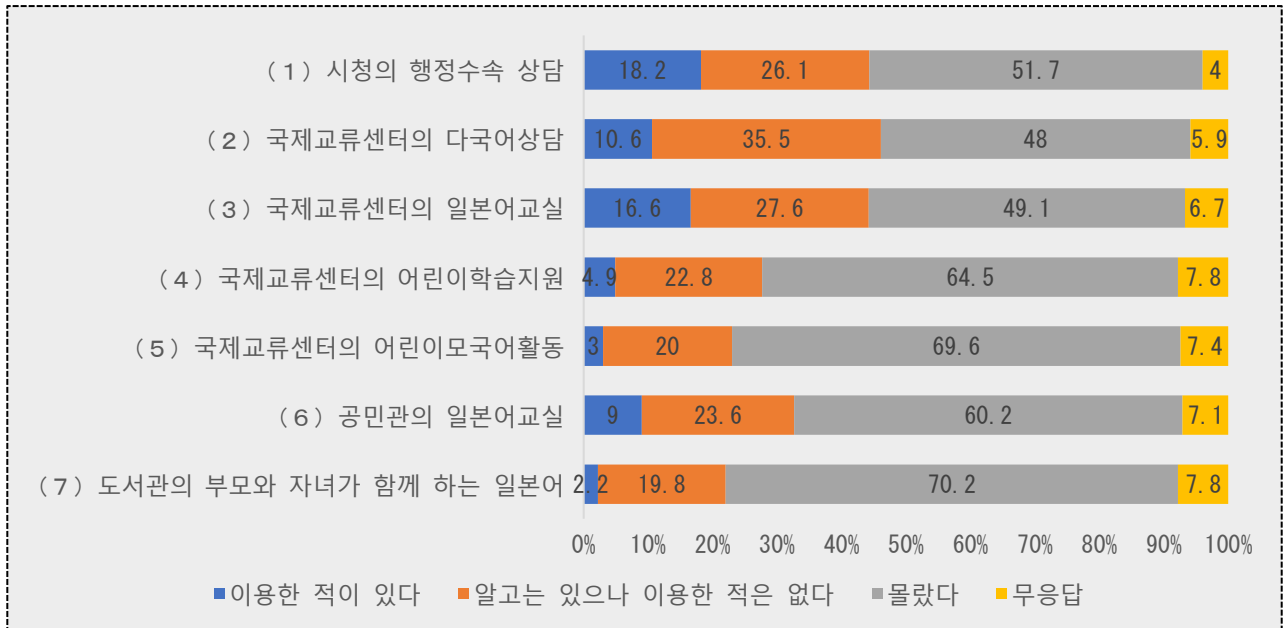
10. 도요나카시 또는 도요나카국제교류센터가 실시하는 서비스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한 적이 있다」와 「알고는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의 응답자를

합치면 46.1%가 「(2) 국제교류센터 다국어상담」을 알고 있습니다.

「(1) 시청의 행정 수속절차에 관한 상담」44.3% 「(3) 국제교류센터 일본어교실에 관한 상담」44.2%의 응답자가 알고 있습니다.

Q. 도요나카시청, 도요나카국제교류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응답자 전체 n=631)



2. 인터뷰 조사

★도요나카시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57명)、도요나카시 행정 상담창구 상담원 (4명)、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상담원 (2명)、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다국어 담당자 (7명) 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방지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출입·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귀국할 수 없는 사람, 귀국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정보, 조성금이나 급부금 등의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TV 등의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회사 상사나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요나카시 또는 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도 많은 정보를 다국어로 발신하였습니다.

다국어로의 발신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도요나카시와 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를 친근하게 느껴지며 안심했다 라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련정보,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곤란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아 보았지만 지원을 받으면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귀화에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모국과 다른 언어나 문화, 습관으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불안이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부담이 커졌다」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 재난으로 일본인과의 교류가 줄어서 오히려 편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공익재단법인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 서포트에 대하여

도요나카 국제교류협회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상담서비스, 어린이와 청년의 쉼터 같은 장소, 학습지원, 일본어교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LINE 으로 꼭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 편집 · 발행 >

도요나카시 인권정책과

〒5 6 1 - 8 5 0 1 도요나카시 사쿠라즈카 3-1-1

전화 0 6 - 6 8 5 8 - 2 6 5 4 / 팩스 0 6 - 6 8 4 6 - 6 0 0 3

E-mail : jkokusai@city.toyonaka.osaka.jp

공익재단법인 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5 6 0 - 0 0 2 6 도요나카시 타마이쵸 1-1-1 (에또레 도요나카 6 층)

전화 0 6 - 6 8 4 3 - 4 3 4 3 / 팩스 0 6 - 6 8 4 3 - 4 3 7 5

E-mail : atoms@a.zaq.jp